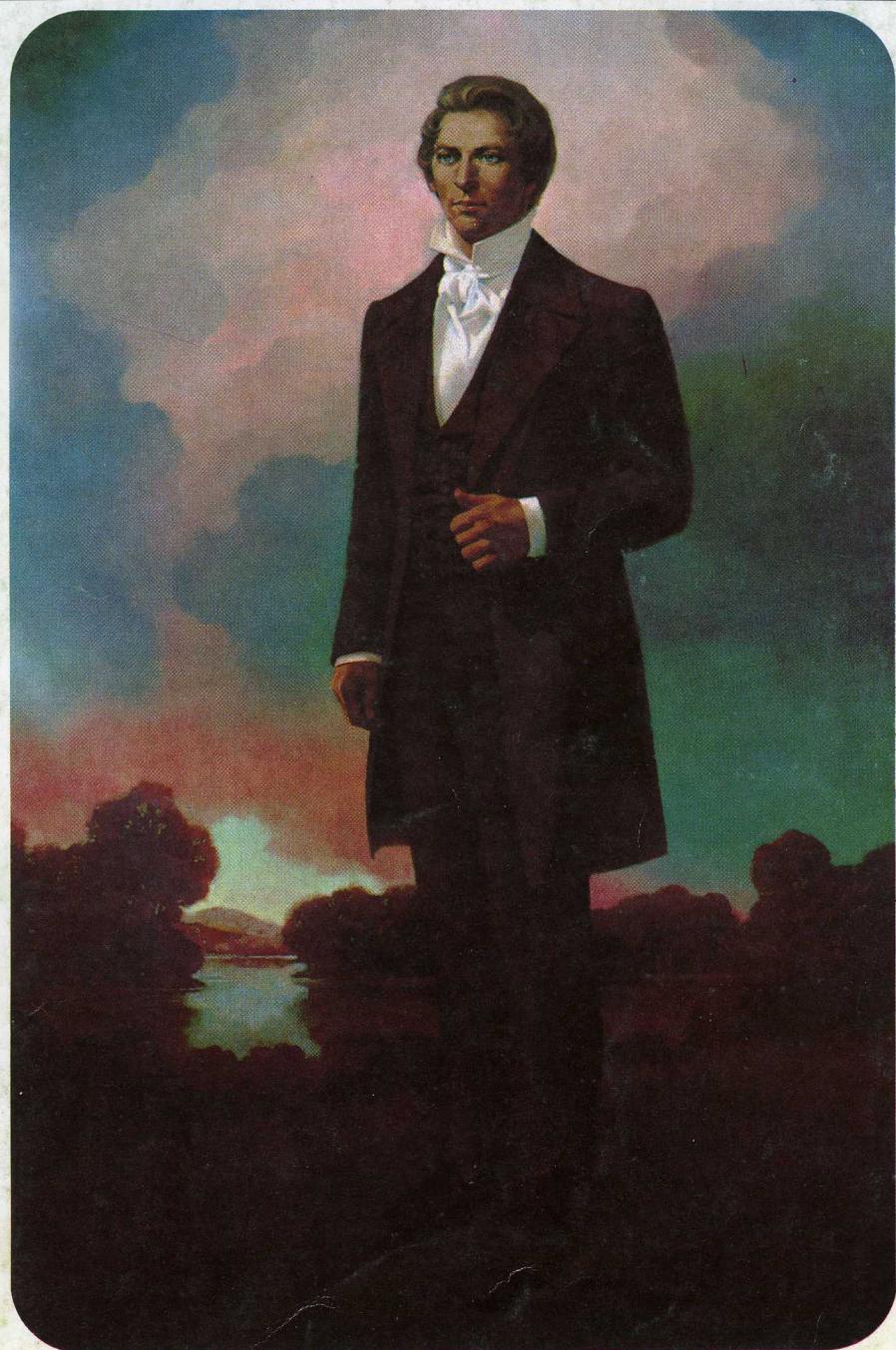


성도의 벗 6

1978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6
1978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킹볼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룸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엘버트 월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애스 몬슨

보이드 케이 폐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恸기

엘름 폐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매리온 디 햄스

로버트 디 헤일즈

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하나가 됨	스펜서 더블류 킹볼 대관장	1
결혼생활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십시오	에프튼 제이 데이	6
“자매님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자 한다면”	린 엘 마	11
어머니의 통찰력	바바라 비 스미스	14
질의 응답		16
나부 여성 기념비	모아나 베넷	17
지역 지도자 메시지	이 남선	18
지역 소식		19
가정은 안식처	엘리스 스트래튼	21
심심풀이		23
성경퀴즈	엘마 드 종	24
다른 종류의 용기	모린 엘스타인	26
지역소식		29
독신 기간 : 부담인가 은사인가	엔지 오스본	31
선교사인 예언자와의 여행	제임스 오 메이슨	34
꼭대기에	존 에이 그린	38
말일의 예언자가 쓴 고전		41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킹볼 대관장	표3

포지 설명 : 예언자 요셉, 스미스, 테드 해닌가 그림, 유화, 76cm×121cm
1977년 작품, 교회 그래픽 라이브러리 소장, 성도의 벗 1977년 9월호 표
지에 본 그림의 크로켓이 실렸었음.

통권 : 제155호, 제14권 제6호

1978년

제155호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진진 소우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6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틸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건수

대관장단 메시지



결혼으로 하나가 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직접적인 행복에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혼은 모든 결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입니다.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특히 그들의 자녀와 그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결정 중 이 결정이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가장 신중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참된 결혼은 정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서로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많은 텔레비전 방송극이나 소설이 결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결혼 의식이 행복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스위치를 넣으면 들어오는 전기불처럼 단추 하나를 누름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은 안일하고 화려하며 늘 흥분에 찬 생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결혼이란 서로 주고 봉사하며 나누고 희생하는 비이기적인 태도로부터 기인되는 행복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은 결혼 의식이 끝나자 곧 현실을 직면

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여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전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배우자의 결점은 결혼 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애 시절에는 크게 돋보였던 상대방의 덕성은 점점 작아져 보이고, 연애 시절에는 하찮게 생각되었던 결점은 점점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갖고, 자신을 반성하며, 올바른 이성으로 냉철하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때때로 재정적인 문제로 내키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짧은



김볼 대관장님 부처의 행복하고 다정한 모습



아내들 중에는 사치를 좋아하여, 가정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가정을 떠나 직업 전선에 나서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장을 갖고 일할 때 가정의 단합과 협동보다는 분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에서 지친 두 사람은 지쳐서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고, 서로가 교만과 독립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은 상호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조
직되거나 못하고 좌절되는 결혼 생활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참으로 영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보다 큰 희열에 찬 황홀경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모든 부부는 생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젊은 남자와 여자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생을 함께 나눌 배우자를 열심히 선중하게 찾아야 하며, 두 사람이 기꺼이 희생을 치르고자 결심한다면 모든 남녀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부부에게 행복하고 영원한 결혼 생활을 약속해 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식이 그렇듯이 주요 요소가 삭제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애하기 전에 배우자를 택하는 것에 끗지 않게 결혼 의식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구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혼 생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의 성공은 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 및 그 밖의 모든 상황은 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란 절대적으로 당사자 두 부부에게 달려 있으며, 그 두 사람이 비이기적이고 의로울 때 성공적이고 복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식은 간단합니다.

첫째, 결혼을 향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를 택할 때 배우자에게 중요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한 거의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을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상당한 비이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셋째, 사랑을 계속 키우기 위하여 계속적인 구애와 애정의 표현과 친절과 사랑 깊음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상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끊임없이 실천할 때 불행이 찾아들거나 오해가 계속되거나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결혼이란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장기적이

고 고된 결약 생활을 의미하며, 재정적인 부담, 봉사와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는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결혼은 모든 정서 중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정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구상

하고 계획할 수 있었으며,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가족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는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늘 그 결정이 부모, 자녀, 가정,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직업 선택, 사회 생활, 그의 친구, 모든 관심사 등은 그가 이제는 가족 일원의 위치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평탄하고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스러운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 생활 중에 가난과 질병과 실망과 실패와 심지어는 가족과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도 부부의 평화를 빼앗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기심이 것들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완전한 자기 회생적인 각오를 하고 있다면 역경이나 어려움이 부부를 더욱 가까이 묶어 깨어질 수 없는 결속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1930년대의 경제 공황기에 이혼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가난과 실패와 낙담 이러한 요소는 부부를 보다 굳게 묶속시켜 주었습니다. 번영이 파괴시킬 수 있는 관계를 역경은 굳게 결속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이기심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또 다른 요인을 성취시켜 줍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관심, 위안, 행복을 영원히 구할 때, 구애 시절의 사랑과 결혼으로 굳어진 사랑은 끊임없이 크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

야 합니다. 독신이건 기혼자이건, 의롭지 않고서는 결코 참다운 의미의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자신의 생활 양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비활동적인 생활을 할 때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비활동은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관습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성공적인 결혼이 아니고서는 결코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자신들의 생활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의 생활보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그들 부부 생활의 근본되는 요소인 복음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일할 때, 그들은 분명코 이 위대한 행복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주 성스러운 신전을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무릎을 끊고 기도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항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순결한 생활을 하여 모든 생각과 소망과 사랑이 반려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함께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 협력할 때, 행복은 것들게 됩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 (교성 42:22)

이 성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남자와도 결합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 친구들에게 계속 집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과거에 자녀를 점유하였던 점유권을 양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부모에게 가서 충고와 권고를 구하며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가장 가까이 결합되어야 할 사람은 아내이며, 모든 결합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를 다른 때 보다 더욱 사랑하고 그들의 권고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친교를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결정은 자신이 내리고 권고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권고를 받은 후에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여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같은 집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밀하게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들이 한 봄을 이 름이 마땅하니,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합이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창조에 따라 인간의 수로 가득 채우려 합이니라.” (교리와 성약 49:16-17)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논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주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세우셨으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에 대하여 그 분과 논쟁을 벌일 만큼 예지가 있거나 똑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무엇이 옳고 진실한가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올바른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올바른 것입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

(1976년 9월 7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의 말씀)

결혼 생활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십시오

애프튼 제이 데이

최 근에 나는 오랫 만에 고등 학교 동창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화제는 주로 남편과 가정과 자녀 등 그동안의 지난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앤이 다음과 같은 말로서 나타내 보이는 실망에 당황하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아.” 그러면서 약간 겸연쩍은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커피를 마신단다. 그이가 마시기 때문에 나도 그러기로 했어.”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가족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책을 제언할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새로 침례를 받은 회원의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읽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아내는 교회에서 갖고 오는 것이면 도무지 읽으려 하지 않는 걸요.”

이상적인 가족형만을 이야기하면 실망하는 교회 회원이 있습니다. 가장이 신권을 행사하고 아내가 내조를 잘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가정에 관한 언급조차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심지어는 적대 감정까지 일으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상적인 가정을 자신의 가정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정은 달의 왕국에 가도



록 운명지어져 있다고 결정하거나,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해의 왕국의 가정이 될 수 없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교묘한 방법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우리 자신을 다스릴 권리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첫



번제 단계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상대방의 자의지를 침해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그와 같은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될 때 결혼 생활은 생기를 잃게 되고 심지어는 비참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서 대개 배우자를 개입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내가 그녀를 위해서 해주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고맙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는 “남편은 집안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 때문에 땀 흘리며 집안을 깨끗하게 하겠어요?”

2. 사태를 변화시키는 데 비능률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난(“십년 동안 벗자루 한 번 안 덴 집 같구요.”), 합리화(“내 아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 준다면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겁니다.”), 불평(“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털끝 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신권 소유자를 남편으로 갖고 있는 자매들이 부럽습니다!”), 위협, 흥정, 그리고 최후 통첩 등의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직접적인 화풀이일 수는 있겠으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잔소리, 억압, 비난, 불평, 합리화, 흥정 등의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데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 우리는 어떠한 결혼 생활의 목표가 합당하고 가치 있는 목표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의 영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발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이러한 요소는 가장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있고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에 배우자의 성품을 여러분 자신의 특수성에 맞추려는 조정은 구세주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거의 확실히 사랑과 상호간의 존

경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둘째,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남편과 아내 등등의 모든 인간 관계의 열쇠는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존경심에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상대방의 성품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 진실한 존경이란 상대방이 상대방 자신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고 복음의 표준을 엄격하게 지킬 때, 비록 그와 같은 진실한 존경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훌륭한 가족 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결립돌이 되는 “세력 다툼”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말일성도 중에는 부부간에 세력 다툼을 고의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며 아내는 남편을 의안에서 내조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이기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하여 투쟁에 가담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다스리려 고집하게 될 때, 설것이를 누가 하느냐 또는 누구의 친구를 식사에 초대하느냐 등의 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상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웃장 청소 또는 설것이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보다 중요한 문제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아내에게 그들이 집안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많은 남편과 아내가 교회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석할 것인지, 또는 언제부터 참석할 것인지, 담배를 풂을 것인지 또는 언제부터 풂

을 것인지, 선교사와 공부를 할 것인지 또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자유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암박감을 주지 않고 “나는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할 때 가족은 보다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외쳐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권 소유자가 가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경전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엡 5 : 23) 그러나 말일의 경전은, 신권 소유자는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을 강압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성 121 : 37-39) 교회는 자매들에게 남편을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경전과 교회 역사를 보아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상기시킬 권리와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나부 상호부조회 여성에게 잔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한 일로 남편을 조롱하여서는 안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순진함과 친절과 사랑을 남편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싸움이나 말다툼이나 의견의 대립이 있어서는 안되어 오직 온유함과 사랑과 순결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모든 선량한 남자의 눈에 여러분을 영화로운 존재로 비치게 해줄 것입니다.”(교회 정사, 4 : 605)

교리와 성약 121편에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성신이 가르쳐 준다고 하였습니다. (교성 121 : 43) 니파이는 이같은 특권이 신권 소유자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성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니이 10 : 17)이라고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값진 은사이며, 일생 동안 극복해야 하는 습관과 강한 편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은사입니다. 나는 최근의 수련 장로 모임에서 가정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네째 원리를 배우게 되었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삼 년 전만 해도 교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였던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연단에 섰을 때 나는 그의 아내 낸시가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오후가 기억되었습니다. 낸시는 남편이 그녀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교회에 대하여 몹시 냉소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서서 간증을 드리는 인자한 젊은 남자는 낸시가 이야기하던 그 사람과는 조금도 닮지 않은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그들의 관계는 ‘거의 파탄 직전에’ 이르게 되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사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읍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읍니다. 아내는 항상 내게 교회에 가자느니,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느니, 온

갖 잔소리를 했읍니다. 결국 아내는 나를 포기하고는 아예 나라는 존재를 의식조차 하지 않는 듯이 행동하게 되었읍니다. 때때로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내가 직장일로 늦게 집에 온다거나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다 준다는 등의 구실로 집을 나가는 것이 나에게 해방의 시간이 되듯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태도가 돌변했읍니다. 갑자기 아내는 나를 끔찍히 위하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읍니다. 마치 사이가 좋았을 때 아내가 나를 위하여 조그만 일을 해주었듯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읍니다. 이러한 방법을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전에도 무슨 책이나 기사를 읽고는 이와 같이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그치고 말았던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간 심각한 것 같았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내가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나에게 아무런 보답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낸시의 태도로 인하여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고 그의 태도도 변화되었다는 그의 말에 크게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했으며, 나는 속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낸시는 나에게 그녀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읍니다. 그녀는 어느 날 사태가 극히 심각한 곳에까지 이르렀음을 깨닫고는, 일이 가망이 없게 될 때 해야 할 일이라고 배웠던 것을 시행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태도가 영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의논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어디선가 큰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읽

었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는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그날 오후에 내 방문을 잡고고는 전에 없이 간절히 겸손하게 큰소리로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사태를 기뻐하지 않으실 줄 안다고 고백하고는 이 사태를 향상시켜 보고자 하는 소망을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남편이 좀더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나 시현을 보지는 못했어요. 허나 혼란된 내 머리 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나의 정신이 산란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이토록 한 곳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지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알겠는데, 그때의 그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나의 응답이어야 했어요! 그 생각은 분명하고 매우 강력했어요. ‘네가 완전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남편을 위해 걱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지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좀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보아야 했지요. 그러다가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난 어느 성찬식 모임에서 나는 두 번째의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와드 내에서 부부 사이가 좋고 영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심까지 생기게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그 부부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게 했어요. 나는 갑자기 평화롭고 거의 황홀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도 우리 가정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어요.

“그때 복음에 마음을 돌이켜 개심한 사람에게 오는 불 같은 그러한 감정을 나도 느끼게 되었으며 주님은 남편을 지켜보고 도와 주시고 계시며, 주님은 남편이 동료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그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적개심이 너무도 부끄럽게 여겨지더군요.”

분명한 방향 감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받아들임, 세력 다툼을 그침, 성령의 제언에 귀를 기울임. 간단하지 않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을 수 없이 인용하였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 쉽습니까? 불행스럽게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큰 보상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50대 50의(반반의) 관계를 가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타협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주장을 고집해야 될 때인가를 결정하도록 도우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배우자가 긍정적인 면으로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약속을 드린다는 것은 의심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을법은 그 자체가 스스로 성취의 길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크나 큰 결과에 대하여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매님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자 한다면”

린 텔 마

데 이비드와 벨리는 결혼한 지 4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친구들로부터 30 퀸로미터 가량 떨어진 캐나다쪽 록키 산맥 근처의 외딴 목장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매우 금실이 좋았습니다.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이들 부부는 행복하였읍니다. 그러나 벨리의 생활에서는, 특히 혼자 있을 때에는, 때때로 낙담이 되는 순간이 있었읍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무엇인가 반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어 놓



은 성과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조용히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넬리는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한 후 데이비드는 점점 더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해졌읍니다.

그 즈음에 마린 형제와 그의 동반자가 데이비드 가정의 가정 복음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이 가정을 방문하려면 60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눈이 깊어 쌓인 겨울에 이 집을 방문하려면 이틀이 걸렸습니다.

첫번째 방문은 겨울에 있었읍니다. 가정 방문 교사들은 데이비드 부부의 요청으로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냈읍니다. 데이비드는 종교 문제가 거론되기 전까지 참으로 훌륭한 주인으로서 그들을 맞아들였으나 가정 복음 교사에게 종교에 대하여 토론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요청에 따라 그들은 즐거운 저녁 한때를 함께 보냈으며,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마린 형제는 부부와 함께 무릎을 끊고 기도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져 기도를 하게 되었읍니다. 주님께 이 가족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가정 복음 교사들이 떠나기 전, 데이비드는 복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마린 형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형제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에 대하여 토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러나 데이비드는 그들에게 매달 정규적으로 방문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데이비드 부부와 가정 복

음 교사는 즐거운 저녁을 보내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첫번째 방문과는 달리 이론 아침녁까지 복음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읍니다. 다음날 가정 복음 교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넬리는 마린 형제를 옆으로 불러서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남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에 입교하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어요.”

“자매님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시고 자한다면, 자매님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읍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넬리의 시선이 발 아래로 떨어졌읍니다. “형제님, 데이비드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홍차와 커피를 좋아해요. 그와 어울리기 위해서 저도 마셔요. 허지만 여러 번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또 한 달이 지나 가정 복음 교사가 다시 방문하였을 때, 넬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저는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편이 홍차와 커피를 끊었어요. 내가 마시지 않는 걸 보고는 ‘당신 왜 홍차와 커피를 마시지 않소?’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 동안 당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배워 왔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생활할 만큼 강하지 못했어요. 당신에게 여러 번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는 사실마저도 깨닫지 못한 채 그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데이비드가 ‘이제 나도 커피나 홍차는 마시지 않겠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다음날 아침, 마린 형제는 떠나기 전에 넬리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기

도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잠자코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뇨. 기도하지 않아요. 남편은 기도를 전혀 믿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 한 후에는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저도 기도하는 것을 잊고 말았어요.”

“그러나 자매님은 기도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말했어요.” 벨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믿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니까요. 자매님은 지난 달에 한 약속을 아시지요. 지키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함께 무릎을 끓고 기도하자고 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테요. 남편이 반대하시면 자매님 혼자서라도 충실히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형제님도 결국 따라오실 겁니다.”

다음달에는 더욱 크게 발전하였읍니다. 잘 시간이 되었을 때 테이비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그들이 떠나기 전, 그들은 벨리에게 “십일조를 바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아뇨. 남편은 십일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 남편인 걸요.”

“그러나,” 마린 형제가 말하였습니다. “자매님에게 할당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받는 수입의 실분지 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자매님께서 십일조의 법을 믿고 계시다면 지키셔야지요.”

다음달 그들이 방문하였을 때, 벨리는 십일조로 3불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결혼한 후 처음으로 바친 십일조였습니다.

다음달 가정 복음 교사가 그들을 방문하고 돌아갈 때 테이비드는 “형제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면 저도 십일조를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십일조를 바치십니까?”라고 가정 복음 교사가 묻자 그는 이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이 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오는 축복의 가치를 내게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린 형제는 벨리에게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놓은 성과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직 자매님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형제님을 성찬식에 모시고 나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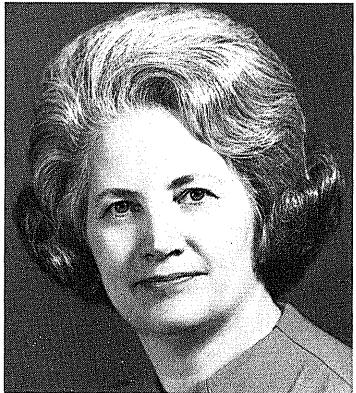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라고 벨리가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공원에 나가는 것을 무척 즐기시는 걸요.”

“남편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매님이 성실한 태도로 노력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권해 보십시오.”

테이비드는 벨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후로 그들은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곧 테이비드는 침례를 받게 되었고, 엘버타 신전이 의식 집행을 위한 문을 열자 이들 부부는 엔다우먼트를 받고 영원한 반려자로서 인봉되는 첫 번째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께서 개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테이비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설교를 듣기보다는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

어머니의 통찰력



바바라 비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축 복사가 나의 아들 블레인과 남편과 나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금식하고 그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을 때, 이와 같이 준비함으로써 그는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블레인에게 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사의 집에 도착하자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축복사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내게 주실 것 같았습니다.

블레인이 점점 자라 선교사로 나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블레인은 운동과 학교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그의 계획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선교사로 나가야만 하나요?”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 블레인아 …꼭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나가고 싶어서 나가야 한다.”

그러자 블레인은 내게 와서 아버지가 선교사로 꼭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 고 말씀하셨으니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얘야, 축복사의 축복을 잊었니? 네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축복되어 있지 않든?”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않고 묵묵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후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왜 선교사로 나갔었니?” 블레인이 물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이유에서였어. 주님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려 드리고 싶어서야.”

이 말은 비옥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되살아나 블레인은 선교 지역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읍니다.

블레인의 축복을 미리 아는 나의 지식은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결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온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가 선교 사업의 특권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나는 나의 생활과 전 세계 상호부조회 회원인 120만 자매의 생활에 성신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지금 이곳에서 확장시켜야 한다는 킴볼 대판장의 권고에 따라, 교회는 각 나라의 성도들이 선교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할 위대한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진리를 증거해 주는 증거자 곧 성신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신의 간증을 지닐 때, 우리는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고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 더욱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세계에서 주님의 사업에 협력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매들이 성취한 일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도 모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양육시키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확

신합니다.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과 딸이 하늘의 권세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 아들과 딸을 양육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종자들과 새로 창설된 스테이크에서 행한 놀라운 업적을 나는 보았습니다.

최근 멕시코시티에 새로 창설된 스테이크에서 훌륭한 수공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모든 면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최근에 열린 연차 대회에서 새로운 개종자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 생활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각기 다 달랐지만 너무나 솔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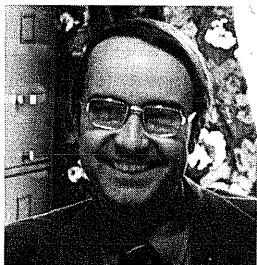
그들의 경험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회복된 진리의 빛을 받아 생의 지침과 목적을 알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대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빛을 사랑으로 비춰게 할 때, 우리의 가족을 둘째 되며, 사랑으로 융화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는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주님을 봉사하고 지식을 얻으며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할 때, 여러분과 나 곧 우리 각자는 성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

질의 응답



스티브 애프 길리랜드
매사추세스 캠브리지
신학 연구원장

우리를 각자가 전세에서 이미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을 찾아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일성 도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종종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전세에서의 존재를 생각할 때 자주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언자의 글에서 우리는 우리 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과 성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민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은 나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천국 회의에서 그 목적으로 성임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천국 회의에서 바로 이 자리에 성임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정사 6 : 364, 앨 13 : 3-9 참조)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나 축복사의 축복에서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 그들이 현재의 배우자와 전세에서 약속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에 관하여, 1971년에 매판장단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전세에 있을 때 우리의 부모와 배우자를 선택하였다는 것에 대한 계시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 연구원 부책임자, 조 제이 크리스턴 손에게 보내는 공문, 1971년 6월 14일)

1931년,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약간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경우에,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것은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완전에 이르는 길, 계보 협회, 44페이지)

이러한 구체적인 경우의 하나에 관하여 어떤 회원은 1857년의 존 테일러 장로가 쓴 기사를 곧잘 인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적어도 한 번은 그가 전세에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여긴다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1857년 8월 29일자 참조)

그러나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이 문제에 관하여 “계시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나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교회지도자들은 경전이나 예언자에 의하여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비리 장로, 신학 연구원 역원에게 행한 연설, 1966년 7월 8일, 6-7페이지) 이 주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느끼는 회원일지라도 이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가장 현명한 태도는 전세에서 취하였으리라고 추측되는 계약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훌륭하게 이룩해 나가는 것입니다. *

나부의 여성 기념비

모아나 베넷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이 이 달에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상호부조회 기념비를 헌납하실 때, 여성은 인류에게 기여한 그들의 공헌에 대한 치하를 받게 될 것이다. 여성의 역할이 의문 시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세기 예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복잡한 사상 가운데에서 분명하고 영원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복음 계획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말일성도의 개념을 묘사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는 여성의 여러 가지 관리 직분과 책임을 설명해줄 것이다. 이 기념비는 지금까지 건립된 기념비 중 가장 큰 여성 기념비이다.

1978년 6월 28일, 기념비 헌납 의식에 이어 나부에서는 사흘 동안 축하 제전이 열리게 된다. 이 사흘간의 축하 제전이 열리는 동안 교회의 여성을 기리는 연극이 매일 저녁마다 공연될 예정이다.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과 간증회는 6월 29일에 열리게 된다.

기념비는 여성을 기리는 조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성상들은 나부 방문자 센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공원에 가로 111미터 세로 73미터의 대지 위에 놓이게 된다. 중앙에 세워진 상은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택하여 자신 있게 앞으로 내딛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여성상은 모든 시대의 여성을 대표한다. 그밖의 여러 여성상들은 모두 여성의 지적인 발전, 자선 봉사, 영성, 모든 세대 사람들의 고제, 가족 관계, 영생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자격 등을 말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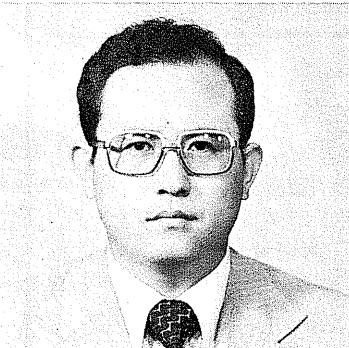
고 있다.

금년 3월로 상호부조회는 창립 136돌을 맞이하였다. “나부가 상호부조회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기념비의 부지로 선택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여성을 대신하여 열쇠를 돌려주고 그들에게 지식과 예지가 넘칠 것이다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빙자 되리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이 나부였습니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IV : 607 참조)라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바바라 비스미스 자매는 말하고 있다.

제일 처음 18명의 자매로 시작된 이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성장과 보조를 같이 하여 커갔다. 1년내에 회원은 1,20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지금 회원은 1,200,000여 명을 헤아리고 있다.

각국의 자매들은 그들의 자발적인 모금 계획으로 모아진 기금을 이 기념비 건립에 기부하였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국제적인 조직을 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스미스 자매의 말이다. “주님은 전세계 모든 여성의 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이 협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성에게 힘과 동반자로서의 자격과 영원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이 이 현세에서와 다음에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의 운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나부 여성 기념비가 모든 여성과 여성 생활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



말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 2 보좌

이남선

우리 모두 1844년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의 순교와 관련해서 기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라고 잠시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그의 교회에 관해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는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아침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요셉 스미스에 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 관해 모른다는 여러분을 보고 놀라는 표정으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둘씩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행정가요, 5,000 명의 나부군단을 거느린 군대의 사령관이요, 나부시와 파웨스트시의 전설자요, 미국 대통령 후보자요, 건축가요, 도시 행정가요, 시장이요, 물본경을 번역한 번역가요, 여섯 권의 방대한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전세의 상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 교회 행정, 직접 계시의 필요성, 부활 후의 세 가지 영광 등의 교리를 전한 위대한 계시자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요, 예언자이며, 그의 특유한 친절, 유머, 신앙, 용기, 외모, 고상한 기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앙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끝으로 이 위대한 사람이 포악한 폭도들의 손에 순교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여러분께서는 과연 요셉 스미스를 어떤 사람이라고 쓰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가 되어 있읍니까.

요셉 스미스의 탄생과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애굽으로 팔려 갔던 요셉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진실로 요셉이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훌륭한 선견자를 세우리니… 그 선견자를 주께서 축복하실 것이며… 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지며, 저는 나와 같으리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렇게 하실 일은 주의 권세로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나파이이서 3:7, 14-15)

나는 복음이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부산 지방 대회

지난 2월 12일 지방부 대회에서 이병학 형제가 해임되고 도길희 형제가 지방부장직에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두 보좌는 민혜기 형제(제 1 보좌) 김치원형제(제 2 보좌)가 각각 임명되었으며 또한 지난 4월 11일과 12일 양일 간에 부산지부에서 한인상 부산 선교부장의 감리로 제41차 지방대회를 가졌다.

새로 개편된 지방부장단이 처음 준비한 이번 지방 대회는 11일 토요일에는 “청소년 활동 축진”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서 현 지방부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분석 평가와 방향제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빈틈없이 진행했다.

12일에는 아침 일찍 초등협회 창립 백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모임을 가져 어린이와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은 평소에 단련한 경건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



위 : 부산 지방 부장단, 전열 좌로부터 민 혜기 제 1 보좌, 도길희 지방 부장, 김 치원 제 2 보좌, 후열 : 좌로부터 집행 서기 한 석순, 서기 박 혁규 형제님들. 아래 : 지방 대회에 참석한 회중.

행 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곧 이어 가진 일반 총회에서는 대회 시작 30분 전에 벌써 대회장이 꽉 메워졌으며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는 복도 등에서 말씀을 경청하였다.

이 날 도길희(지방부장) 형제의 말씀에 이어 한인상 선교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 날 대회는 614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여수지부 회원 전투경찰 위문

여수지부는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식수를 마치고 50여명의 성도가 조국을 위해 수고하는 전투경찰대를 방문하여 위문하고 교회를 소개했다.

교회에서 마련한 목련과 동백나무를 전투경찰관들과 함께 기념 식수도 하고 노래, 게임, 장끼자랑, 무용놀이, 선교사 무언극, 보물찾기 등에 이어 교회 소책자와 가정의 밤 교재, 몰몬경, 회복된 진리라는 책을 전달했으며 행복의 추구와 몰몬 교회에 대한 필름스트립을 보여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래지부 대회

지난 3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동래지부는 지부대회를 가졌다.

18일에 열린 아론신권 대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준비한 홀륭한 연극을 통해 그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했으며 또한 회원 소개, 다과회도 가져 그들의 우정을 더욱 두텁게 했다.

19일 본 대회는 도길희 지방부장 감리로 가졌으며 도길희 지방부장은 계명 가운데 생활하여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 날 모임은 158명의 회원 및 구도자가 참석했다.

동래지부는 1967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 하고 있다. 현재 이 종업 형제가 이 지부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지역 소식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4월 22~23일 양일간 서울 스테이크는 1978년 2/4분기 스테이크 대회를 제1 와드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감리자인 고마쓰 장로와 작년 10월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가 참석하였다.

321명의 부모와 청소년이 참석한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제3 와드의 김종열 감독과 장석숙 자매, 최영규 형제가 모두 “청소년 활동 촉진에 관한 나의 책임과 책임 수행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호남 스테이크 부장은 “총효사상”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기꾸찌 장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킴볼 대관장님의 “일지를 써서 기록으로 남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였다.

일요일 일반 총회는 이호남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특별한 모임이었다. 고마쓰 장로가 진행한 스테이크 행사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서울 스테이크를 이끌어 오던 훌륭한 지도자인 이호남 스테이크 부장과 그 보좌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이 부름을 받고 모든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에 최옥환 형제, 제1 보좌에 최동현 형제, 제2 보좌에 남영진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이호남 부장은 그를 지지해 주시던 그 노력과 사랑으로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단을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하셨다.

이어서 새로 지지 받은 스테이크 부장단의 말씀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테이크에 봉사하는 마-



상 좌 : 말씀하시는 고마쓰 장로와 통역하시는 이 호남 부장
상 우 : 말씀하시는 기꾸찌 장로, 하 좌 : 말씀하시는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 하 우 : 신전 역원을 지지하는 성도들.

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겠다”고 말씀했다. 최옥환 스테이크 부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많다고 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복된 복음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말일의 밝은 빛으로서 어여쁜 마음으로 꿰뚫리고 마는 훌륭한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고 솔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어서 기꾸찌 장로와 고마쓰 장로는 계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한국 민족은 조상에 관한 기록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해 온 훌륭한 민족”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모두 조상에 관한 기록을 신전의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한국 땅에 신전이 세워질 때까지 동경의 신전에서 신전 의식을 행할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셨다.

이번 대회에서 장로 19명, 칠십인 2명, 대체사 1명이 탄생했다.

이번 대회는 1270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가정은 안식처

앨리스 스트래튼 글

내 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 한 것은 우리가 콜롭 목장에 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어머니의 곁에 무릎을 끓게 하시고는 나의 기도를

도와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나는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스하고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 때문에 나는 천막 밖으로 깔린 어두움도 무섭지 않았고 밤이 가져다 주는 정적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천막 지붕 위로 다람쥐가 뛰어가는 소리, 솔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모두 경쾌하게만 들렸습니다. 이따금 솔방울이 천막 위에 떨어져 땅바닥으로 굴러가는 소리도 정다웠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침대에 누이고는 잘자라고 말하고 목장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에는 언니들이 우유통을 썼고 있을 것이고 아빠는 노란 불빛 아래서 신문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콜롬은 숨바꼭질을 할 수 있는 평원과 언덕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점심을 싸들고 우리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알 정도가 되었다고 느끼신 어머니는 언니들과 나를 계곡 아래의 제재소에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나는 모험이었습니다.

파랑새가 참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나르며 우리의 길을 앞섰고 우리에게 무어라 지껄이는 듯하였습니다. 이상하다는 듯이 우리를 쳐다보던 딱따구리는 우리가 가까이 가니 나무 구멍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블루벨과 자색 헤이지가 만발하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새로운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쁜 돌과 야생꽃을 모았습니다.

시간은 쏟살같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숲을 지나 집에 닿았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 숲 속으로 가라앉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모은 우리의 보물을 한 아름 안고 어머니에게 보여 드리려고 집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옥

수수빵의 구수한 냄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이 이상스레 텅 비어 있었읍니다. 엄마가 안 계셨습니다. 나는 뒷문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침대가 있는 큰 천막으로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는 해가 천막 안을 황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곳에 엄마의 침대곁에 엄마는 무릎을 끊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놀라서 서 있었읍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일어서시자 나는 물었읍니다.

어머니는 내 볼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시면서, “내 어린 딸들이 무사히 집에 오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는 몰랐는데!” 나는 놀랐습니다. 정규적인 가족 기도를 빼놓고는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침대 곁에 앉아 나를 가까이 앉히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팻시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단다.”

부드러운 석양 속에서 나는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기쁨에 넘쳤으며, 솔밭 사이로 부는 미풍도 기뻐했습니다. 소나무에서 미풍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

심심풀이

가족이 서로 엉켜 있습니다. 부모님
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딸은 몇
명이며 아들은 몇 명인가요?



준 앤 올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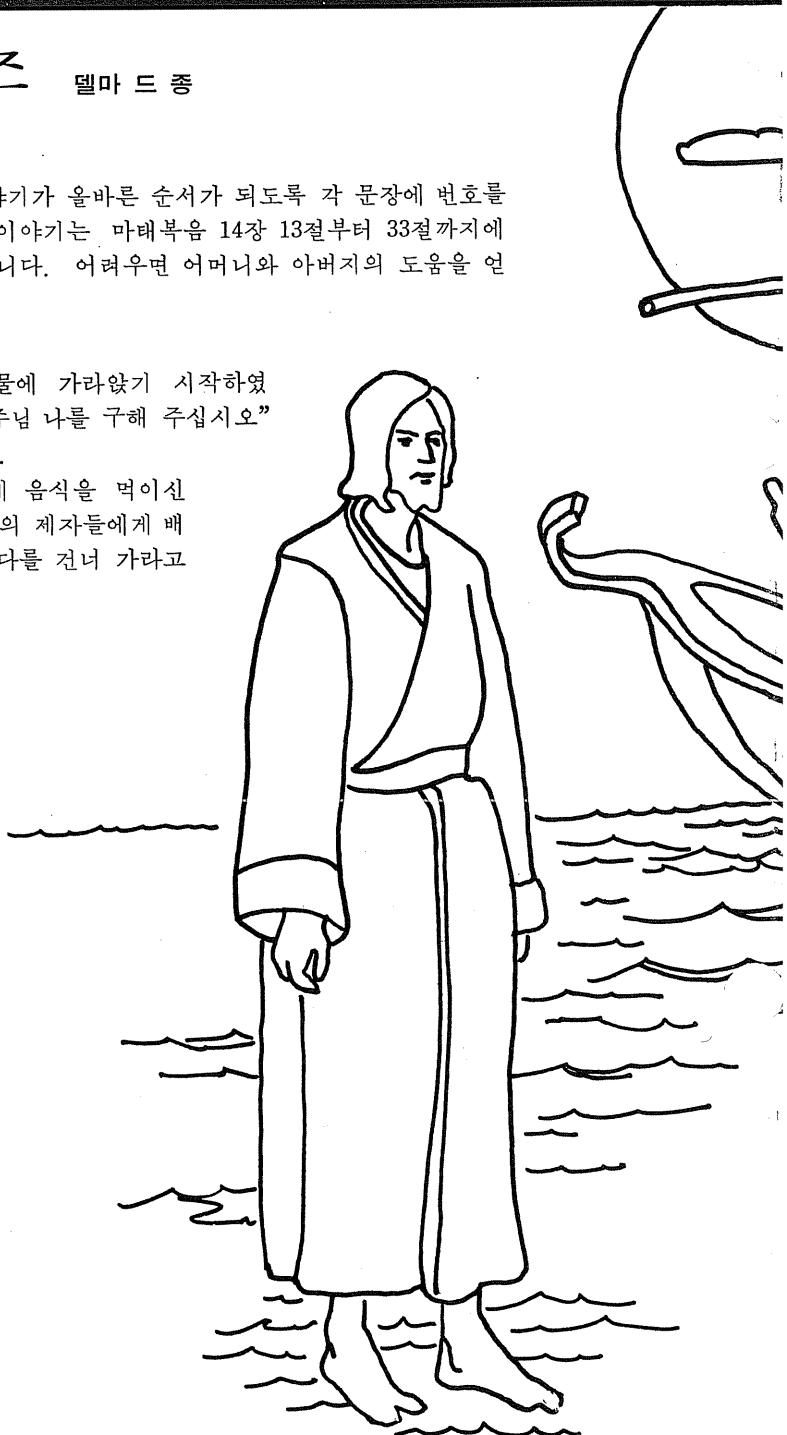
성경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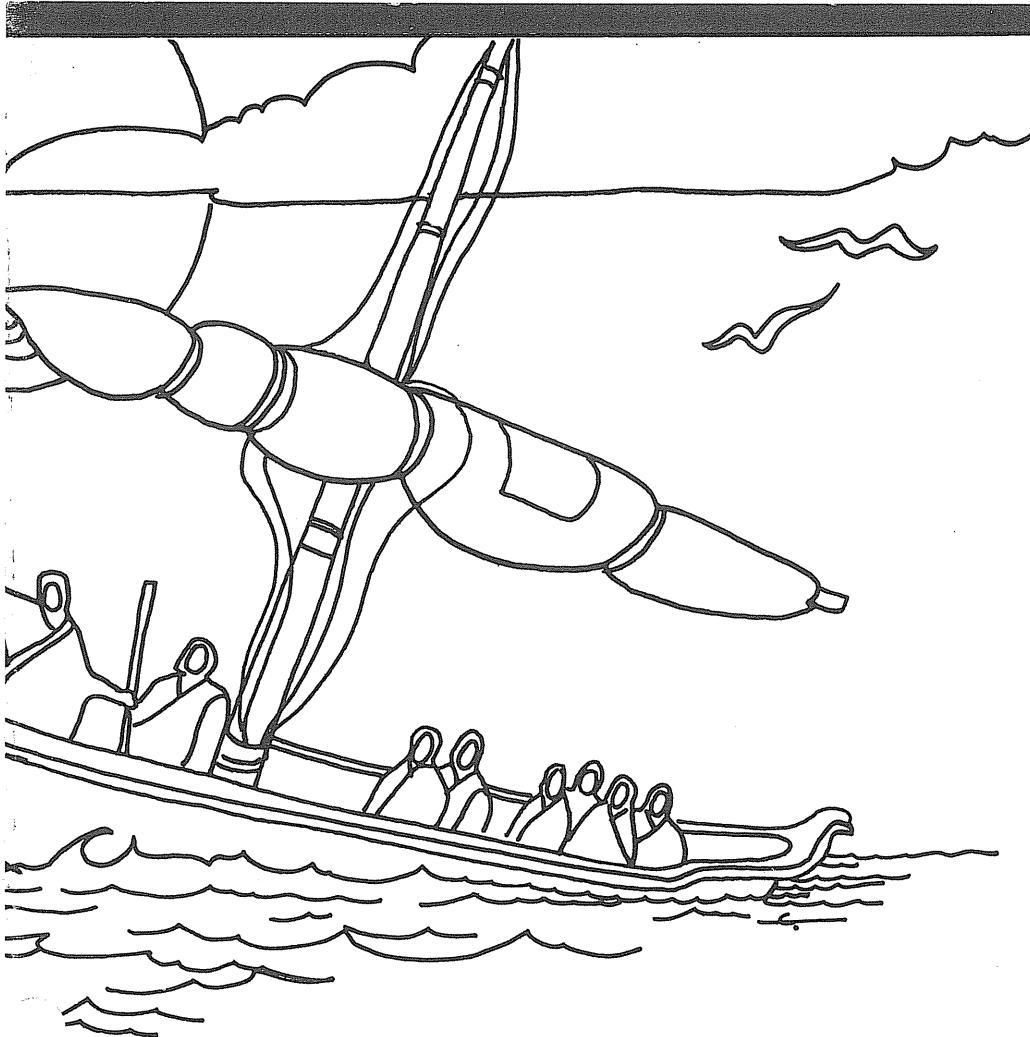
델마 드 종

다음 성경 이야기가 올바른 순서가 되도록 각 문장에 번호를
붙이십시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우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을 얻
으세요.

○ 베드로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하였
습니다. 그는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 오천 명에게 음식을 먹이신
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배
에 올라 먼저 바다를 건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놀라며, “저것은 유령이다”라고 말하였읍니다.
- 밤에 강풍이 불기 시작하자 바다 물결이 높아졌읍니다.
-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읍니다.
-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셨읍니다.
- 베드로가 이에 답하여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위로 오라 하소서”
-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읍니다.

*

다른 종류의 용기

모린 엘스타인



로 이스 베넷은 입이 바싹바싹 타는 것 같았고 오두막 꼬대기에 섰을 때 배가 마구 뒤틀리는 것 같았다. 작열하는 뉴질랜드의 태양은 녹슨 핵석 지붕에서 불을 뿜어 내는 듯하였다.

그녀의 사촌인 랜 타비스톡이 밑에서 소리쳤다. “움직여! 가만히 서 있으면 떨어져!”

그들이 타비스톡 농장을 방문하면 유픽 랜이 모든 놀이를 주장하였다. 여름 오후에 함께 위험한 장난을 하는 사람은 로이스와 랜과 랜의 사촌 앤리스 태어 타비스톡 이 세 사람이었다.

앤리스태어는 이 지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고 지붕 모서리에 다리를 긁혔다. 눈물이 그의 얼굴에 흘렀다. 랜의 경멸하는 듯한 “겁쟁이 같으니라구!”라는 외침 때문에 앤리스태어는 간신히 가파른 지붕 위를 끝까지 건너갔다.

로이스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모아 몸을 일으켰다. 앤리스태어도 그녀의 나이 또래였다. ‘앤리스태어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그녀는 다짐하였다. 넓은 밭을 넘어 타랑가만의 푸른 바닷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녀의 바로 앞에는 날카로운 지붕 모서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감히 아래를 내려다볼 수도 없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그녀는 원쪽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핵석 지붕의 뜨거운 열기가 바늘처럼 그녀의 무감각해진 발바닥을 찔렀다. “아아!” 그녀는 중얼거리며 발가락을 오므렸다.

비웃는 듯한 웃음 소리가 아래에서부터 들려 왔다. 로이스는 입을 꾹 다물었다. ‘저 지겨운 랜과 타비스톡에게 본때를 보여 주어야지.’ 로이스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로이스는 눈으로 지붕의 길이를 어림잡아서 침착하게 건너 버드

나무 가지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다.

랜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자...”

로이스는 몸을 희 둘려 걸어 나왔다. 그녀는 사내애들이 하는 시시한 장난이 지겨워졌다. 채소밭 끝에서 동생 로레인은 타비스톡 가족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터널을 파고 있었다. 그 놀이도 로이스에게는 탐탁하지가 않았다. 로이스는 먼지 나는 풀밭 길을 걸어갔다.

바퀴 자국이 나있는 길 끝에는 방풍림이 둘러져 있었는데 그 길에서부터 대로가 나 있었다. 로이스는 앤리스태어의 집인 넬판지 방가로가 있는 농장으로 곧장 가는 것보다 저쪽 길로 나가보리라 마음을 먹었다.

농장은 타랑가만으로부터 삐죽이 나온 길고 좁은 여러 개의 반도 중 하나의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절벽을 따라 포후트카와가 만발하여, 잣빛을 띤 초록잎에 붉은 꽃 다발이 눈부시게 아름다왔다. 뉴질랜드에서는 12월 내내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뉴질랜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한다.

대로 끝에는 포도나무가 지나치게 자란 흰 박공의 집이 있었다. 시들어 버린 분홍색 장미의 먼지 섞인 내음이 바람을 타고 풍겨 왔다. 그 넓은 집을 넘어서 삼각형의 공터가 있었다. 집은 그 마당을 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뒤로 하고 오히려 대로를 향해 서 있었다. 높은 울타리 때문에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호기심이 난 로이스는 나무 문에 바싹 붙어서 들여다보았다. 사람이 사는 흔적도 없었다. 그녀가 그곳을 탐험한다 해도 아무도 개의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로이스는 문을 기어 올라갔다.

중앙부는 풀로 덮여 있었으며 부드려웠다. 그러나 절벽 꼬대기 주위로는 포

후투카와가 무성하였다. 해안선을 따라
파여져 있는 깊은 침호에는 포후투카와
의 잎이 가득하였다. 이상스러운 느낌
이 들자 로이스는 침호를 좀더 자세히
조사하였다. 가장자리 쪽에 흙으로 된
독의 혼적이 있었다. ‘요새인가?’ 로
이스는 생각했다. ‘맞아! 마오리족 요
새였을 거야. 끊임없이 종족 싸움이 계
속될 때 지은 요새임에 틀림이 없어.’

이 전쟁의 잔재는 이 지역의 다른 집
들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다. 무거운
침목이 이곳을 내리 눌렀다. 그 침목은
너무도 무거워 혼들리는 나뭇잎과 해안
가에 부딪치는 물결마저도 얼어 붙게 할
것만 같았다. 로이스는 풀밭으로 나와
버렸다. 이곳에 나오니 남의 집에 침입
하였다는 느낌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
졌다. 로이스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오리족에게는 신성하게 여기는 곳
이 있다던데’ 로이스는 생각했다. ‘여
기도 그런 곳의 하나님에 틀림없어.’ 고
대의 타부가 살랑거리며 불어오는 바람
을 통해 더욱 뚜렷이 느껴지는 듯했다.
‘오지 말걸.’ 로이스는 생각했다. 가슴
이 두근거렸다. 로이스는 뒷걸음질을 쳐
서 다시 문 밖으로 나왔다.

로이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자 아
이들은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디 갔었니?” 랜이 물었다.

“그냥 산보했어.”

“왜 같이 놀지 않았니?”

로이스는 어깨를 들썩여 보이며, “시
시한 놀이라서.” 하고 대답했다.

“무서워서 그랬지?” 랜은 앤리스태
어를 돌아보며 동조를 구했다. “그렇
지 않니, 앤리스태어야?”

앤리스태어는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
를 신경질적으로 끄덕였다.

로이스의 눈이 번쩍였다. “내가 너보

다 지붕을 더 잘 넘었어, 앤리스태어 타
비스톡아.”

“그래, 알았어.” 랜이 말했다. “그러
나 그후 같이 놀지 않았으니까 우린 너
에게 아주 어려운 모험을 하나 하게 해
야겠어. 그걸 못하면 우리 노는 데 끼
어 주지 않겠어.”

“도대체 계집애하고 놀고 싶어하는 애
가 어디 있담?” 앤리스태어가 웅얼거
렸다.

로이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나마
이 무례하고 전방진 사촌하고 놀지 못
한다면 아무하고도 같이 놀 사람이 없
다는 것을 로이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아! 생각났어!” 랜이 기쁜 듯이 외
쳤다. “반도 끝에 있는 마오리족 옛날
무덤에 갔다 오면 끼어 줄께.”

앤리스태어의 얼굴에도 미소가 퍼졌다.
“그래. 그 묘지에 가서 반 시간 동
안 있어야 해.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로이스야.”

“싫어.” 로이스의 음성은 단호했다.

“너 겁쟁이구나?”

로이스는 웃었다. 로이스는 그들에게
자기가 이미 그곳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 버리기
에는 너무도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어떤 힘이 로이스의 가슴 속에서 자
라는 것 같았다. 이제는 랜의 독재적인
요구에 더 이상 앤리스태어처럼 호응하
지 않아도 되었다. 로이스는 다른 종류
의 용기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왜 안 간다는 거야?” 그는 놀리는
투로 말했다.

“내가 너보다 지각이 있어서 그런다.”
로이스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의 얼굴
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

148차 연차 대회 소식

제148 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이 있기 거의 한 시간 전에 태버내를은 이미 꽉 차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성도들은 흐리고 바람부는 토요일 아침에도 불구하고 템플 스퀘어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태버내를 지하층에는 수많은 교회 번역사들이 마지막 손질을 하느라고 바빴다. 생기에 넘치는 태버내를 합창단은 오전 9시 50분 경에 대회 첫 모임에서 합창을 부르기 위해 그들의 자리에 참석했다. 잠시 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들어오셔서 단상에 앉으셨다. 대관장이 들어 오실 때 합창단과 회중들은 모두 일어섰다.

또 하나의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의 말씀은 교화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식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킴볼 대관장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과 나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거듭 간증드립니다. 이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김볼 대관장은 교회의 회원들에게 많은 목표를 주셨다. 그는 정원을 가꾸라고 하셨고, 계보 사업과 선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개인 및 가족 일지를 작성하고 가정의 밤을 가지라고 하셨다. 그는 자녀 학대, 낙태, 이혼의 만연을 경고하셨으며 또한 그는 교회의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 높은 이상을 지키고 있음에 대해 경의를 표하셨다.

태너 부대관장은 모든 발전은 진리 즉 견고하고, 확실한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에서 모든 진리를 얻는 것은 중

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태너 부대관장은 과학적인 진리든, 영적인 진리든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계시된다고 하셨다.

매리온 지 룸니 부대관장은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에게 그들이 8세가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그들이 12세가 되면 신권을 소유할 특권이 주어진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는 아론 신권 소유자에 대해 너무나 큰 신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권능을 주셨다고 지적하셨다.

초등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는 400명으로 구성된 초등협회 어린이의 대 합창단의 합창으로 시작되었으며 초등협회의 기원과 오레리아 스펜서 로저스의 공헌에 대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의 서술적이고 감명적인 말씀이 있었다.

이 대회에 있었던 다른 주목할 만한 일은 대회의 신권회를 위해 특별히 조작된 400명의 수련 장로의 대 합창단이었으며, 또 하나는 다음해 1월부터는 1년에 2번씩 스테이크 대회를 갖는다는 발표와 신권지도자들이 그들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회 프로그램과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발표였다.

4명의 새로운 장로가 칠십인 제일 청원회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켈리포니아의 로스 앤토스 출신의 로널드 이포울맨 장로와 영국 노팅엄 출신의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와,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의 로버트 엘 백먼과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의 렉스 시 리브 장로였다.

200명의 지역 대표가 참석한 모임에서는 교회의 비활동 회원을 활동 촉진하고 크게 강조하였다.

* 대회의 모든 모임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10월호 성도의 빛에 수록된다.

서 스테이크 배구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회 주최 배구대회가 3월 25일과 4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 선교부 배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배구 대회에서는 특별히 독신 성인 회원들 만이 선수로 출전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2와드, 6와드, 7와드, 9와드, 인천 와드, 화곡지부, 안양지부 등이 참가하여 다채로운 응원과 열띤 경기를 벌였다.

이 모임에서 김차봉 부장과 김희남 고등평의원, 허병석 회장은 그 어느 경기보다도 훌륭한 경기가 될 것을 기대했고 이틀 동안 모든 회원이 끝까지 응원을 하여 와드별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3월 25일 예선에서 올라온 9와드, 7 와드, 인천와드, 2와드가 4월 1일에 리그전을 벌려 승부를 결정하였다.

이번 배구 대회의 최우수 상은 2와드에서, 우수상은 9와드, 장려상은 7와드가 획득했으며, 모든 회원들이 통일된 부장과 열띤 응원과 단결심을 보여준 6와드는 단결상을, 먼 곳에서 적은 회원으로서 팀을 구성한 안양지부는 노력상을 받았다.

이번 제 1회 배구 대회에 참석한 회원 수는 210명이었다.



배구 대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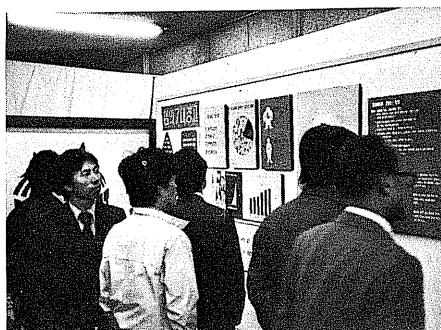
“건강한 가족—행복한 가족” 전시회

1978년 4월 1일 교회의 복지 선교사와 공보과는 대전 문화 센터에서 “건강한 가족—행복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서울에서도 보건주간을 맞아 4월 5~8일에 건강 전시회를 시청앞 지하도 전시장에서 가졌는데 이 전시회에서는 특히 한국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 전시된 분야는 기생충, 결핵, 암과 흡연, 치아 건강, 가정의 밤과 가족 관계 등이었다.

많은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과 두 스테이크 회원들이 이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전시회에는 방문객이 5800여명이 넘었다.



사진 설명: 좌: 지혜의 말씀을 설명하는 보건 선교사와 방문자 우: 열심히 포스터를 관람하는 방문자들.



교회가 갖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온사의 하나는 독신 회원에게만 줄 수 있는 많은 독특한 축복과 특별한 기회인 것 같다.

결혼을 기다리는 초조한 기간 동안 우리는 결혼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영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독특한 기회를 쉽게 소홀히 여기기 쉽다.

33세의 독신으로 개종하게 되었던 나는 축복사의 축복에서 약속된 신전 결

혼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지 8년 만에 나는 성실한 독신 회원에게 오는 특별한 축복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독신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자신

독신기간 : 부담인가 은사인가

앤지 오스본



의 독신 상태를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생활하거나, 아니면 우리 생애의 이 일시적인 기간을 활동적, 창의적인 기간으로 만들어 생활할 수도 있다. 이 독신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진보뿐 아니라 현재와 영원한 행복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직업 문제이다. 나는 자주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 “말일성도 독신 여성이 많은 시간과 많은 교육을 요하는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여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를 일 반화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여성은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큰 만족을 찾는다. 의대 교수이며 전문의로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에 크게 궁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히 진단하기 어려운 병을 진단하여 명명을 밝히게 될 때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된다. 기도와 신령의 축복을 통하여 나는 또한 내가 현재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는 위안과 확신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간을 많이 요하고 많은 희생을 요하는 직업이 교회의 많은 여성 심지어 대부분의 여성에게 응답이 될 수는 없다. 나의 생활을 통하여 가장 크고 가장 오래까지 지속되는 기쁨은 나의 특수한 직업에서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남이 안 보는 데에서 행하는 자선 봉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다. 독신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에 큰 축복이 되는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 자신의 필요 사항과 문제에만 급급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울음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에 귀여거리가 되기란 너무

도 쉬운 일이다.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와드 내에서 따뜻한 식사를 필요로 하는 회원이 누구인지, 접안 청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방문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병으로 기동을 할 수 없는 회원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가져가면 병자는 참으로 고맙고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처럼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시간은 후에 결코 없을 것이다. 신학 연구원이나 통신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있다. 또한 우리는 개인 경전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부지런히 실시할 시간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향상된 자기 훈련은 우리의 남은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양서를 선택하여 많은 책을 읽을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내가 수련 의사로서 공부하는 동안 나는 수입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어느 헌가 나는 성탄절 선물을 모두 내가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나는 날염에 대한 책 한 권을 샀다. 놀랍게도 나는 발굴되지 않은 예술적인 재능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 내게 되었다. 내가 선물로 만든 날염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던 화방 주인이 나의 작품을 보고는 개인전을 열게 해주었다. 이 개인전에서 나의 작품은 날개돋힌 듯이 팔려 나는 전문의 기간 동안의 경비뿐 아니라 집값의 일부까지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저축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계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내 남동생—그도 역시 개종자이다—과 나는 충실히 계보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기쁨과 환희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식구는 모두 옛날 사진을 모으고, 기록을 찾으며, 가족 나무 그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부지런히 봉사하는 데에서 오는 큰 만족감은 아무리 크게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본부 주일학교 임원의 한 사람이지만 와드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할 때 역시 큰 기쁨을 맛본다.

우리에게는 건강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나는 일주일에 세 번은 스키를 타고 테니스를 즐기며, 황금색 리트리이버(사냥개의 일종)을 테리고 나간다. 정규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은 우리의 신체를 단련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정서 까지도 고양시켜 준다.

우리에게는 와드나 지부의 가족과 사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들로부터 야구 시합, 음악회, 성탄절, 연주, 수영장 등에 초대를 받는다. (또한 나는 이것을 끓여 기다린다.) 우리 자신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이들 청소년이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면서 성인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는 데 무언의 격려를 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나는 금식과 오랜 기도가 나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노스서를 읽고 주님께 오랜 기도로 가까이 가겠다고 결심하였을 때 나의 인생은 급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나는 현재와 앞으로의 생에 대한 개인적인 지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

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굳건한 찬증을 얻은 것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이 파고들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얼마 전에 나는 이러한 절망의 순간적인 경험을 갖게 되었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엄습하였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나는 이웃 친구들의 우정에서 위안을 찾았다. 나는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이웃의 나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었으며,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정신을 높혀 주고 강하게 불들어 주고 도와 주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의 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절망감이 더욱 무겁게 내리 누르면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기 바란다. 무엇 때문에 절망감이 오는지를 인식해 보기 바란다. 절망감이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존경이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시키려 한다. 사탄은 우리를 자기 연민의 구렁 속에서 뒹굴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 절망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나의 필요 사항과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밝게 만들었으며 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따뜻한 빛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귀중한 보화인 시간을 기뻐하고 이 특별한 은사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



선교사인 예언자와의 여행

제일즈 오 메이슨 박사

지역 대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는 맨체스터에서 한 번 갖고, 벡시코시에서 한 번 갖고, 뮤니히에서 한 번 갖는 식으로 한 번에 한 도시에서만 모임을 갖도록 일정이 계획되었다. 대회장으로 갔다가 끝난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은 총관리 역원에게 비교적 간단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특별히 스페인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영도하에, 먼 지역 성도들의 대회에도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다섯 내지 넉섯 개의 지역 모임에 연이어 가게 되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여정이 되었다.

1975년에 아시아 지역의 지역 대회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약간 걱정이 되었다. 총관리 역원과 그들의 아내,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수행원들을 위한 의사가 동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의 수는 많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제언이 수락되

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지역 대회에 참석하는 여행에 동행하기로 결정되었다. 1976년에 나는 이러한 임무를 떠고 유럽 지역 모임에 동행하게 되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킴볼 대관장님과 자매님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데에 무척 감명을 받았다. 내 아내와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대관장 내외분 옆의 뒷줄에 앉았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좌석 벨트 신호등에 불이 꺼지자 킴볼 대관장님은 우리쪽으로 몸을 돌리시고는 “기분이 괜찮습니까?”라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그분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동행하고 있는 나에게 오히려 그분이 그와 같은 관심을 보여 주셨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이 위대하고 친절하며 다정한 분은 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셨다. 우리는 그분의 따사로움과 인자함으로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파리에서의 첫번째 지역 대회를 마친

후 우리는 핀란드 헬싱키로 갔다. 킴볼 대관장님은 사흘 동안 바쁘게 일하셨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꽉 짜여진 일정에 따라 일하셨으며 밤 늦게 잠자리에 드셨다. 그분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다.

그분은 모임을 감리하시고 사회하실 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통역자를 세워 말씀을 하셔야 했다. 또한 그분은 기자 회견을 가지셨으며, 많은 지역 역원을 접견하고 성별하셨다. 우리는 저녁 늦게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도중에 우리는 코펜하겐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야 했다. 공항의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킴볼 대관장님이 양복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계셨다. 나는 한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대관장님,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나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오, 고맙소. 나도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가져야 하지 않겠소?” 그분은 자신의 집을 자신이 들겠다는 태도를 이처럼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분이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아름다운 태도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이 지역 대회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우리는 오래된 아름다운 호텔에 투숙하였다. 호텔 지배인은 근엄하고 키가 크고 몸이 곧은 회색 머리의 프레시아 신사였다.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 같아 보였다.

다음날 우리가 호텔에 도착하자 지배인은 킴볼 대관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분이 이 로비를 지난 폐마다 난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킴볼 대관장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느꼈던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지배인은 대관장님을 소개받았다. 킴볼 대관장님은 그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그에게 가정의 밤 교재를 주셨다. 그는 선교사와 토론할 시간을 약속하게 되었다.

호텔 지배인은 이 살아 계신 예언자와 잠깐 만난 데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곳을 떠나는 날, 우리는 호텔 정문에서 버스를 탔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역을 한 바퀴 돌아 다시 호텔을 지나게 되었다. 우리가 호텔을 지날 때, 이 당당한 신사는 보도 위에서 서서 킴볼 대관장님에게 흰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호텔 지배인이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예언자의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도 주님의 영을 느꼈다는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었다. 킴볼 대관장님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기신 분이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외모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하지마는 그분에게는 특별한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도르트문트 지역 대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반면에 킴볼 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 그리고 그분들의 부인, 그 밖의 몇 사람은 스위스의 베른으로 여행하였다. 그곳에서 대관장단의 두 분은 하루와 반나절을 스위스 신전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셨다. 그들은 14일 동안 다섯 지역의 지역 모임에 참석하며 여행하였다. 베른에서 버스를 타고 츄리히로 가서 그곳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탔으며 다시 뉴

옥에서 솔트레이크로 오는 동안 그분들은 지치지 않고 다니셨다. 나는 다시 한번 킴볼 대관장님의 특별한 열의를 볼 수 있었다.

14일 동안 쉴 사이 없이 여행이 계속 되었고 앞으로 30시간 안에는 침대에 들거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버스에 오르자 우리들 대부분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졸기 시작하였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분도 쉬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아직 고속 도로에 진입하지 않았을 때 킴볼 대관장님은 일어나셔서 버스 운전 기사 옆좌석에 앉으셨다. 내가 거의 기진한 상태로 좌석에 몸을 내맡기고 있을 때, 다른 누구보다도 더 피곤한 예언자는 그 버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지 못한 단 한 사람 때문에 쉬지 못하시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 보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등을 기대고 앉아 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예언자께서는 피곤도 무릅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욕망을 식히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버스 운전 기사와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지 의문스러웠다. 킴볼 대관장님은 독일어를 하지 못하셨다. 처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단지 몇 분이 지나자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나의 걱정은 그들이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에서 자주 대관장님을 보며 운전하는 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지 않고 버스를 잘 몰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

다.

운전 기사가 대관장님의 진지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매우 관심을 갖고 듣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그들의 대화는 츄리히 외곽 지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킴볼 대관장님은 다시 그의 좌석으로 돌아오셨다.

버스가 츄리히 공항에 당자, 스위스 츄리히 선교부장 개리 이 오브라이언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문이 열리자 킴볼 대관장님은 버스 문으로 다가서서는 오브라이언 부장에게 들어오게 하여 그와 악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브라이언 부장, 이 사람은 ——씨 인데 형제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오?” 오브라이언 부장이 “네, 대관장님.”하고 대답하자 대관장님은, “——씨, 이 사람은 선교부장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버스 운전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대답하였다.

이 경험은 실로 나에게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예언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교통하고 계시며, 장막 너머로 더욱 분명하게 보시는 분이다. 그는 선교 사업의 긴박성을 알고 계신다. 몹시 피곤하여 선교 사업의 기회를 뒤로 미루고 잠시 쉬어도 될 때 일지라도, 미루지 않고 그분은 열심히 선교 사업을 계속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나 내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그 밖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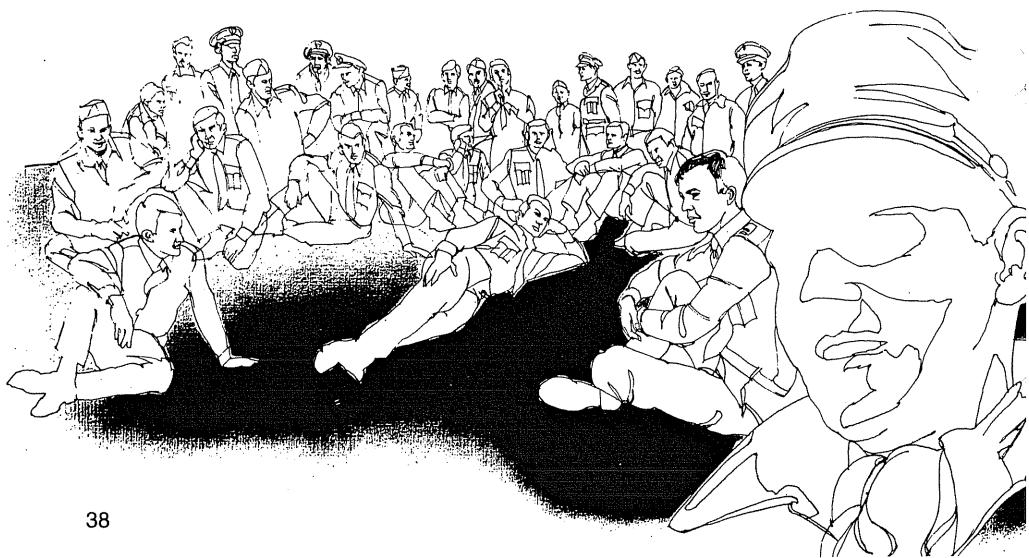
*

꼭대기에

존 에이 그린 글
에드 휠스 그림

우리는 도합 27명으로 모두가 18세 혹은 19세 되는 젊은 청년들이었고, 한 친구만 21세였는데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처음 우리 비행

그룹을 시작할 때에는 3명이 더 있었으나, 그들은 캐나다 왕립 공군의 기초 훈련에서 엄한 신체 단련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해 버렸다. 우리는



우리보다 그다지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이들과 교체하기 위하여 여러 달 동안 맹훈련을 받아왔다. 그 젊은이들은 아직도 독일의 상공을 나르며 기관총과 방풍 유리 뒤에서 독숨을 내걸고 감시하고 있었다.

기초 훈련을 마치면 으레껏 “졸업식”을 가졌다. 각 비행 그룹은 제각기 거의 모든 종류의 시합에서 다른 어떠한 그룹보다 자기의 그룹이 더욱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각 훈련 행단은 기초 훈련을 마칠 때 그들의 비행 그룹이 가장 훌륭한 그룹임을 증명해 보이는 비행 파티를 갖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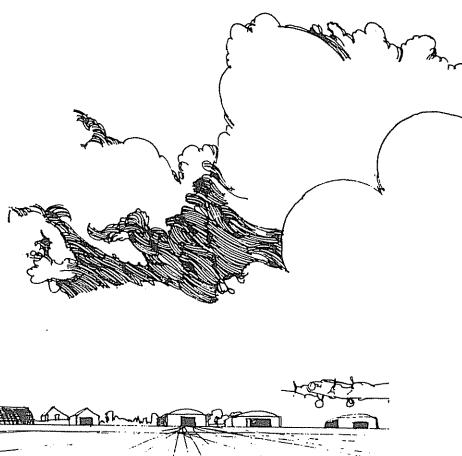
우리 비행 그룹도 예외는 아니었다. 젊은 패기로 우리는 밤의 어둠 속에 뛰어들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외치며 일생 동안 남을 만한 쾌락의 도가니에 잡겨 하루 저녁을 보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 우리 27명은 잔디밭에 앉아서 비행 파티에 대하여 의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매우 외로운 느낌을 갖고 앉아 있었다. 우리 비행 그룹이 조직된 이래 처음으로 나는 내가 이 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었다. 제일가는 나이트 클럽이 좋다

고 말하면서 즐겁게 웃어 떠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도 그들이 가장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무척 흥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각자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좋은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대여섯 명이 자기들의 생각을 열심히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 보자.”

나는 이 그룹에서 유일한 몰몬이었으며, 아무에게도 아무말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다만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어떻게 26명의 비회원에게 매주 일요일이면 참석하는 지부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매주 일요일에는 저녁을 초대받는 선교 본부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일요일 저녁마다 선교사들과 함께 피아노 주위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 전차를 집어 타고 막사의 불이 꺼지기 전에 돌아온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짓을 나이트 클럽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26명의 비몰몬 친



구들에게 어떻게 일요일 밤에 막사로 돌 아올 때 느끼는 춥고 우울한 기분을 말 할 수 있겠는가? 매주 일요일 밤마다 막사에 발을 들여놓을 때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얼마나 예민 하게 느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막사에 들어섰을 때 들은 첫마디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조롱하는 말로 삼 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날 내 머리 속을 재빨리 스치고 지나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개의조차 암을 거야. 조롱하고 웃겠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행 파티는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잘 나타내 보여 주고 있어. 그러나 내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지.” 이 비행 파티에서 빠지려면 난 뭔가를 해야 했다. 여러 달 동안 이들과 함께 지낸 지금 내가 갑자기 고통스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또한 나를 이같이 난처한 입장에서 게 하는 그들에게도 화가 났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비행 파티에 참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나도 이미 그들은 내가 참여하고 싶어 할 만한 파티를 조직할 수 없는 사람들로 판단했다.

“그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자.”

“그래. 그린, 넌 왜 한 마디도 하지 않니?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앞에 있는 풀을 침울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글쎄, 비행 파티에 내가 간다면 말이다… 난 아주 예쁘고 단정한 여자를 데리고 가겠어…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추잡한 말 같은 것이 일체 없도록 말이

야.” 나는 감히 아무도 바라볼 수 없었다. 나는 바야흐로 펴부어질 맹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잠시 동안 쥐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조용해서 풀 위에 바늘이 멀어지는 소리조차도 들릴 정도였다. 그려자 누군가가 말을 꺼냈다.

“저….”

이것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들은 제각기 한 마디씩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나의 세상적인 친구들과 그들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맛을 떠나 쓸쓸하게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이었다.

“저… 나도 예쁜 소녀를 데리고 잘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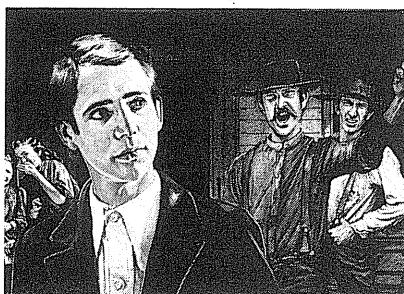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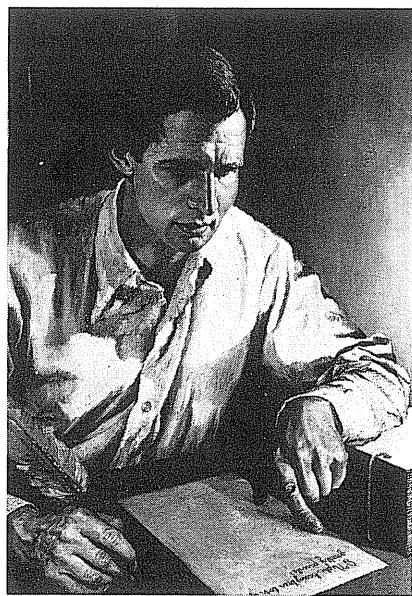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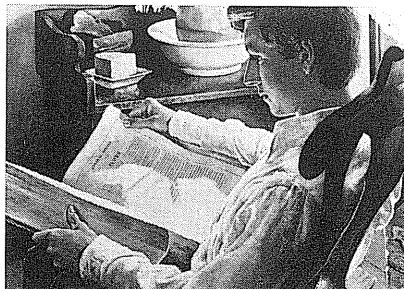
그 친구 옆에 있던 친구가 “너만 그럴 줄 아니?”라고 말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고 오른쪽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이번 파티의 위원장으로 그린을 추천한다.” 추천된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일주일 후에 27명의 우리 비행 단원은 모두 아름답게 옷을 입은 여자 친구를 데리고 파티에 나왔다. 술이 없었다. 단 배도 피우지 않았다. 추잡스러운 말은 없었다. 다만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좋은 춤… 그리고 독특한 비행 파티에 좋은 추억만 있었다.

잔디밭에 앉아 있었을 때인 1944년 어느 햇빛 내리쬐는 오후를 나는 또렷하게 회상하고 있다. 나는 부지중에 26명의 생활에 감동을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들을 아래에 놓았으며, 그들은 나를 꼭대기에 올려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들을 본 것으로 기억한다. *

말일의
예언자가 쓴
고전



웬트 워스 편지

말일의 예언자가 쓴 고전

요셉 스미스라 하는 뉴욕주의 어린 시골 소년이 1820년에 그의 기적적인 시현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하였을 때, 그의 이웃은 그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요셉 스미스가 후대에 수백만 명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1844년 6월 27일, 예언자가 순교당하였을 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가 시작해 놓은 사업이 곧 붕괴되리라고 생각했다. 그 까닭은 그들은 그의 사명과 그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업의 성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경을 번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한 후, 요셉 스미스는 진실로 그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842년 3월 1일자 예언자의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적혀 있다. “시카고 페모크랫지의 편집인이며 경영자인 존 웨트워스씨의 요청에 응하여,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세운 말일성도 교회의 융성, 발전, 펼박,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냈다. 웨트워스씨는 나의 이 자료를 뉴햄프셔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그의 친구 베스토우씨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베스토우씨가 정당한 단계를 밟아 정확한 자료를 얻게 되었으니, 내가 그에게서 바라는 것은 오직 그가 이 자료를 조금도 덧붙이거나 고치거나 잘못 전달하지 말고 그대로 실어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예언자의 편지는 교회에서 그냥 “웬트워스 편지”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칠십인제 일 평의회의 일원이었으며 교회의 유명한 학자요 역사가였던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1857-1933)는 이 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 책자 중 가장 뛰어난 문서이며 또한 예언자가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기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출판하게 된 초기 문서이다… 말을 간결하게 짐약시키면서 동시에 주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루느라고… 역사적인 문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책자 중 이것에 필적할 만한 기록이 없다. 이것은 불과 몇 페이지 안되는 테에… 교회의 주요 사건이 온전하게 기록된 놀라운 역사 기록이며, 처음부터(1805년 요셉 스미스가 탄생한 때부터) 이 기록이 출판되던 1842년 3월까지의 36년간의 교리의 개요이기도 하다. 신앙개조라고 불리어지게 된 교회 교리의 개요는… 학문적인 체계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영감을 받아 한 번만에 만들어 놓은 개요이다… 우리 종교의 원리를 이처럼 짐약적으로 명확히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할 수 있었던 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하다.”
(교회 정사 4 : 535)

신앙개조가 신앙의 근본으로 되어 있고 값진 진주와 그 밖의 여러 책자에 실려 있으므로(수많은 선교사용 소책자 뒤에도 나와 있다.) 이 신앙개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주의깊게 읽어 보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편집인

웬트워스 편지

주 : 본 기사는 요셉 스미스로부터 혐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역대 교회 대관장의 중요한 말씀과 글을 특집 시리즈로 실는 첫번째 기사이다.

나는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주 원저군 쉐론읍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10살이 되던 해에 나의 부모는 뉴욕주 팔마이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약 4년간 살다가 우리는 다시 만체스터로 이사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였으며 내게 가축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자, 나는 당시 종교문제에 관하여 평장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종파마다 제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으며, 모두가 자기의 종파의 신조만이 가장 옳고 다른 종파는 모두 이것에서 파생되어 나간 것에 불과하다고 외치고 있었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종파가 한결같이 모여 옳은 것은 아닐 터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처럼 많은 혼란을 빚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종교에 대하여 좀더 완전하게 조사해 보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고 계시다면 그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 종파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 주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행해야 할 의식을 가르쳤다면 다른 종파에게 또 다른 원리를 가르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

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야고보의 말을 확신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숲 속의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 하자마자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현으로 싸여 영광스러운 두 인격체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그 모습이 매우 닮았습니다. 그분들은 대낮인데도 태양의 빛을 삼켜 베릴 듯한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어떠한 교파도 하나님을 그의 교회와 왕국으로 깨닫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가까운 미래에 충만한 복음이 나에게 밝혀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823년 9월 21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전의 귀중한 약속을 믿는 신앙을 보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방에 비쳤는데, 그 빛은 더 순수하고 더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불길에 싸인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은 나의 온 전신을 떨게 하였습니다. 곧 한분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분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밝히면서, 기쁜 소식

곧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성약이 곧 성취될 것이며, 메시야의 재림을 위한 준비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고, 충만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온 백성이 복천년의 통치를 준비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하여 보내셨다고 말하였읍니다. 나는 또한 이 영광된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진 도구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알게 되었읍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 대륙의 원주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그들의 기원과 발전, 문화, 윤법, 정부, 그리고 그들의 의와 불의,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간 것 등에 대한 것이 나에게 알려지리라고 말해 주었읍니다. 그분은 또한 이 대륙에 존재하였던 고대의 예언자들의 기록을 요약해 놓은 판이 묻혀 있는 곳을 알려 주었읍니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여러 차례의 방문을 받고 말일에 일어날 여러 가지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들은 후, 1827년 9월 22일 아침, 하나님의 천사는 나의 손에 기록을 넘겨 주었읍니다.

그 기록은 금 같아 보이는 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판은 폭이 6인치, 길이가 8인치 가량 되는 것으로 보통 양철 두께 정도였읍니다. 판에는 고대 이집트 문자가 가득 새겨져 있었으며, 각 판은 고리 세 개로 이어져 큰 책과 같이

묶여 있었읍니다. 책의 두께는 15센티미터 가량이나 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인봉되어 있었읍니다. 인봉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문자는 작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읍니다. 이 책 전권에는 그 구조상으로 보아 고대의 기록임을 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문자를 새기는 기술면에서도 상당한 솜씨가 엿보였읍니다. 이 기록과 함께 “우림과 둠밈”이라 하는 이상한 도구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은 두 개의 투명한 돌로서, 습판에 연결되어 있었읍니다. 우림과 둠밈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이 기록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중요하고 흥미있는 책에는 언어가 혼란되었을 때 바벨탑에서부터 이 대륙으로 처음으로 이주해 온 때로부터 그리스도 시대의 5세기 초까지 이 대륙의 고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읍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 고대 이 대륙에는 두 종류의 민족이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첫번째 민족은 바벨탑에서 적접 건너 온 야벳 민족이었으며, 두번째 민족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약 6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온 민족이었읍니다. 그들은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읍니다. 야벳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건너 왔을 때 즈음에 멸망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땅의 주민이 되었읍니다. 이 두번째 민족을 주로 이루고 있는 국가도 4세기 말에 전쟁에서 멸망당하였읍니다. 그 잔류민이 현재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안입니다. 이 책은 또한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대륙에 나타나셨

으며, 그의 충만하고 풍부하고 권세있는 축복의 복음을 이곳에 심어 놓으셨고, 이 대륙에도 사도, 예언자, 목사, 교사 그리고 전도사가 있었으며, 동반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차, 신권, 의식, 은사, 권능, 축복이 주어졌으나, 백성들이 범법하여 멸망하였고, 그들 중에 있던 마지막 예언자가 그들의 모든 예언과 역사를 요약하여 땅에 모아, 이 기록이 말일에 출현되어 성경을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물본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나부와 다른 순회 장로들에게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거짓 소문이 날개가 바람을 타고 날리듯이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으며, 폭도들과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빈번히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피습당하였으나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나에게서 이 판을 빼앗으려고 온갖 악한 수단이 가하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나를 안전하게 지주셨고 몇몇 사람들은 나의 간증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1830년 4월 6일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에서 최초로 조직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 부름을 받아 성임되어, 영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고 안수례에 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현을 보고 예언을 하였으며, 귀신을 내쫓고 안수로써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확장되어갔으며,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인디아나주, 일리노이주, 미주우리주 등지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미주우리주 잭슨군에서는 크게 교회가 성장되어 많은 회원이 교회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는 많은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우리는 풍부한 수확을 거두어 평화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그들의 대부분은 난폭한 자들로서 공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문명 사회로부터 도망하여 개척자의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었읍니다.) 함께 그들의 한밥중 노략질이나 암식일을 범하는 일이나, 경마와 도박 등에 어울리지 못하자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하더니 펫박을 가지고 결국은 폭도를 조직하여 우리의 집에 불을 지르고 우리 형제들의 몸에 타르를 칠하고 것을 끊고 매질을 하였으며, 끝내는 법과 공의와 인간성에 어긋나게 성도들을 그곳에서 추방하였읍니다. 집도 없이 쫓겨 난 성도들은 황량한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으며,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11월에 일어났읍니다. 혹독한 추위에서 그들을 따뜻이 덮어 줄 수 있는 지붕이란 하늘밖에는 없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못 본 체 외면해 버렸으며, 우리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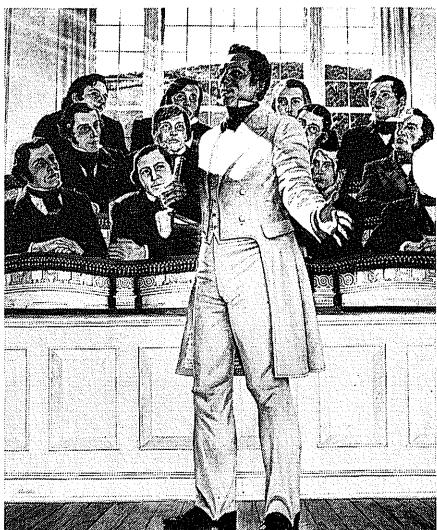
유권을 갖고 있고 아무 법도 범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읍니다.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는 병자가 많았으며, 이러한 학대를 참아야 했고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읍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생활은 안정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죽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홀아비가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농토가 폭도들의 손아귀에 넘겨졌고, 우리의 많은 가축과 양과 말과 돼지, 가재 도구, 비축된 물품, 인쇄기 등등이 강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형제들 중 많은 사람들이 클레이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1836년까지 3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폭력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위협은 있었습니다. 결국 1836년 여름에 이 위협은 구체적인 양상을 띠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집회를 갖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악의와 파괴로 위협하였습니다. 사태는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잭슨군은 충분한 전례가 되었습니다. 군 당국이 개입하지 않자 그들은 거리낄 것이 없다고 의기양양해 하였습니다. 군 당국에 호소해 보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닫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잃어버린 후 우리는 다시 집에서 쫓겨 났습니다.

다음에 정착한 곳은 칼드웰과 데이비스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군에서 정착하여 비교적 큰 정착지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1838년 우리는 다시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고, 주지사 보그스는 몰몬 균절령을 포고하였으며, 폭도단을 모아서 우리의 소떼와 양과 돼지 등을 강탈하였습니다.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죽음을 당하였고, 여인의 순결이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칼끝에서 우리의 재산을 포기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악한 폭도들에 의하여 온갖 모욕을 당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집 농토를 두고 집도 없이(겨울에) 방랑의 길을 떠나 멀 야만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역경으로 인하여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늘어갔습니다. 미주우리주에서 우리에게 가하여



쳤던 온갖 비행과 불의와 유혈 살인과 절도와 비참한 상황 등을 일일히 기술 하려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려한 상황에서 우리는 1839년에 일리노이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정한 사람들과 가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원리와 인간성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록군”에 “나부”라는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수는 6천 내지 8천 가량을 헤아렸으며, 주변의 여러 군과 그 주의 거의 모든 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부 현장을 제정하였고 1,500명 가량의 군대를 위한 현장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학과 농업 및 산업 협회에 대한 현장도 갖고 있었고, 우리 자신의 법률과 행정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자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소유하였습니다.

핍박은 진리의 진보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은 결과가 된 셈이었습니다. 진리는 옥 굽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길은 진리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무죄를 의식하며, 중상과 비난 중에도 이 교회의 장로들은 나아가 거의 모든 주에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여러 도시에 파고들었으며 많은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덕망 있고 학식 있으며 애국적인 많은 시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의하여 다크립을 받게 하였습니다. 진리는

영국, 애란,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지에까지 퍼졌으며, 1840년에는 소수의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5천여 명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 밖의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팔레스타인, 뉴질랜드, 호주, 인도, 그 밖의 여러 곳에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손이 이 사업을 정지시키지는 못합니다. 흡박이 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소집되고 비난이 들끓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게 또 고귀하게 앞으로 퍼져 나아가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는 일이 행하여졌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 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번하는 은사 등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륙(아메리카)에 시온이 건설되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

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와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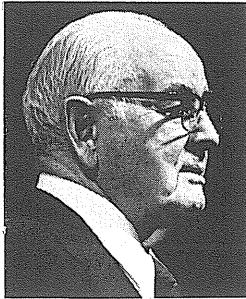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습니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교회 정사 4 : 535)

*

요셉 스미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 : 5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법자는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하여는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길은 정신 마취제로 감정을 둔화시키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방법이나 이 방법은 완전하게 성공할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회개하여 자신의 생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앤마는 회개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앨 39:6)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약간의 가책을 느껴 한두 번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한 죄를 지었을 경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결의 법을 범한 자는 살인 다음가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물론 살인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율법을 범한 자는 곧 감독이나 지부장을 찾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범범한 사실을 무시해 버린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자는 올바른 교회 역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암스펠담, 일반총회, 4-7 페이지)

솔트레이크시티 신전에서 있었던 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부부의 결혼을 집행할 방으로 가기 위하여 긴 복도를 걸어 나올 때, 의식을 마친 방에서 한 여자가 나를 따라 왔읍니

다. 그녀는 매우 흥분된 어조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킴볼 장로님?”이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을지 몹시 난처해졌습니다. 내가 만나 본 사람은 수없이 많았던 것 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미안합니다만 자매님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대신에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안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남편과 제가 우리의 생의 방향을 바꾸려 할 때 장로님과 함께 한 밤을 새운 적이 있었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투쟁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장로님께서 우리와 함께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였고 완전히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켰어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니 기쁩니다. 사도이신 형제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구세주께서도 저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니까요.” 그녀의 얼굴은 안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회개하여 우리의 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면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암스펠담, 신권회 모임, 1976년 8월 7일, 6페이지) *

“나는 야고보의 간증 즉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것이며
꾸짖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2:26, 25)